

빛고을 광주 랜드마크 '전고 싶은 거리' 조성

광주시가 최근 발표한 '금남로 프로젝트'는 광주에 랜드마크 거리를 조성해 도심공동화를 극복함과 동시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모두 3대 분야 9개 핵심사업(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국비와 지방비 2천600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6년 마무리된다.

이 사업은 금남로 가로공원화 사업을 정점으로 ▲5대 권역 특화거리(충장로, 예술의 거리, 황금동, 서석로, 동구청 로터리) 등의 구역을 독립된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 ▲테마가 있는 3대 보행로 조성(금남로와 연결되는 보행로 3곳을 단장) 등을 통해 관광상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핵심은 광주의 상징인 금남로를 걷고 싶고, 찾고 싶은 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차선을 줄이는 대신 보도 폭을 대폭 늘림과 동시에 다양한 나무를 심어 금남로 전 구간을 숲의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산이다.

△관광명소로서의 금남로 공원=금남로 가로공원 사업은 보도를 넓히고, 나무를 심어 공원을 만들자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시민들이 걸거나 쉬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 오는 거리',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광주의 명소를 인식해 사진 촬영을 하는 '머무는 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차량통행 중심의 도로를 보행자 위주의 공간으로 바꾸고, 주말에는 차없는 거리를 조성함과 동시에 각종 이벤트를 개최해 유동 인구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가로공원 조성의 기본은 오는 2010년까지 금남로 1가~5가(1.6km)의 차도폭(왕복 6차선)을 왕복 2차선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보도를 7~8m에서 → 15m 정도로 확장하고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심는 것이다.

가로공원은 조각물과 전시·퍼포먼스·노천카페 등이 운영될 수 있는 개념으로 꾸며지며, 구간에 따라 보도를 직선 뿐만 아니라 곡선형으로도 만들 방침이다.

특히 금남로 1가~5가는 각 구간별로 특색있는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은 물론 공간 운영도 차별을 뒤 1.6km 거리가 흥미로운 공원으로 탄생한다.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교차로 구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보행브릿지를 설치해 걷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통표지판·공중전화부스·

'금남로 프로젝트' 핵심내용

분야	핵심사업	사업내용
보행자 중심공간	• 걷고 싶고 찾고 싶은 광주의 랜드마크거리 '금남로 가로공원' 조성	• 금남로 가로공원 조성 • 아름다운 야간 경관조명 체형거리 조성 • 개성있는 건축미관 가로구축(금남로 Vista 형성) • 무등산 푸른숲 공원·광주천·사직공원과 친환경적 연결
테마가 있는 3대 보행로 조성	• 도심공원 보행로 조성 • 교육문화중심 보행로 조성 • 음식·쇼핑중심 보행로 조성	• 금남로와 연계되는 보행로(경관리)를 지정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람코스로 활용
5대 권역 특화거리 조성	• 광과 남만이 깃든 충장로 권역 특성화 • 전시 공간이 살아 숨쉬는 예술의 거리 권역 특성화 • 여유롭고 휴식처 같은 황금동 권역 특성화 •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서석로 권역 특성화 • 교육 문화산업 유치에 위한 동구청 로터리 주변 특성화	• 소품·패션의 장(특화거리 조성/이케이드 설치 등) • 예술인의 창작촌 • 특화지구 지정/문화시설 확충 등 • 음식·쇼핑의 장(보도점비/전문수집점 유치) • 체험·교류의 장(영상문화시설 건립/에듀인포 유치) • 교육·문화산업의 장(IT·CT관련업소 유치/TOI백화점 유치)



금남로 프로젝트 조감도

가로등 등 보행 및 경관을 해치는 가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미술적 요소를 가미할 계획이다.

또한 가칭 가로정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금남로에 위치한 건물 외관과 간판을 제정비 하고, 관계이벤트·LED를 이용한 야간 경관조명도 곁들여 도시미관의 격조를 한층 더 끌어 올린다는

계산이다.

유치되는 인구를 구매로 연결시켜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로공원과 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선선(Sunken) 광장과 지하광장을 확보할 예정이다.

△테마가 있는 3대 보행로=금남로와 연계되는 3대 보행로를 특화시켜 국

내외 관광객들의 관광 코스로 활용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금동재개발구역~사직공원~향교~광주공원~중앙로’ 2.61km 구간은 ‘도심공원 보행로’로 가꿔지며, ‘지산유원지~조선대~아시아문화전당~예술의거리’ 3.72km 구간은 아시아 예술 및 교육을 체험하는 ‘교육문화중심 보행로’로 조성된다. 또 ‘패션부지 푸른길공원~남광주역~아시아문화전당~충장로~천변우역’ 1.95km는 아시아의 음식·극장·패션을 체험하는 ‘음식·쇼핑중심 보행로’로 탈바꿈한다.

△5대권역 특화거리=충장로를 영화관과 쇼핑몰이 어우러진 ‘젊음의 거리’, ‘광과 남만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 아스콘 포장을 천연 석재로 교체한다. 1~3가는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 현재 재형 거리로, 2가는 청소년 중심 디지털 문화의 미래형 거리, 4~5가는 회고적이고 전통적인 이미지의 과거형 거리로 특화된다.

특히 주차장 확보와 차량통행 불편으로 인해 마땅한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광주 학생회관은 1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소년 culture complex’로 리모델링된다. 이 공간에는 청소년 전용 카페와 공연장, 유스호스텔, E-스포츠(컴퓨터 게임 등) 전용경기장이 들어서며, 청소년의 학습·취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충장로 1~3가에는 개개 가능한 동형구조의 지붕을 설치, 시민들의 쇼핑 편의는 물론 새로운 명소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예술의 거리는 ▲전문화랑 30개 확충 ▲아시아 예술 창작공간 조성 ▲사설미술관 및 박물관 7개소 확보 ▲현재 2개인 공연시설을 10개소로 증설 ▲광주 예술인회관 건립 등을 통해 전시·공연이 살아숨쉬는 문화지구로 거듭난다.

황금동 거리는 그림과 우표·화폐·고서적·골동품 등 테마형 취미 수집품 골목길을 조성하고, 이국풍의 음식점·쇼핑 공간 및 미관을 유도체 휴식처 같은 공간으로 차별화한다.

서석로는 기존의 웨딩숍에 아시아 각국의 웨딩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시키며, 동구청 로터리 주변은 출판·인쇄거리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장난감 백화점 거리를 추가로 조성해 교육·문화산업의 공간으로 모습을 바꾸게 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특특튀는 시민 아이디어

세계적 내내 꽃 만날 수 있게 5·18정신 살릴 수 있도록 해야

금남로 프로젝트는 공원으로 조성될 금남로(1~5가)를 중심으로 인근 8개 거리를 특색있게 꾸며 도시화 성화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광주시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금남로 가로공원 사업에 있는 만큼 태스크포팀을 구성해 자체 연구에 들어가는 한편 지난 달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초에는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구간별로 다른 종류의 나무를 심어 걷는 재미를 주는다는 의견이 많다.

1가에 꽃나무를 심을 경우, 2가에는 배·감나무와 같은 유실수 등을 심어 보행자들이 1.6km구간을 걷는 동안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꽃나무는 개화기·계절을 고려해 심어 세계적 내내 거리에서 꽃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구간별로 심는 나무의 색깔(꽃이나 잎 등)과 벤치 등 부대 시설물의 색깔까지도 차별화해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아이디어도 있다.

1~5가에 각각 다른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설득력이 있다. 버룩시장이나 물물 교환시장을 비롯해 화가의 거리, 조각의 거리, 삽화 시간대만 열리는 풍물시장(아시아), 공연의 거리 등을 거리 특성에 맞춰 적절히 안배하자는 견해다.

이와 함께 금남로는 지난 1980년 5·18민중항쟁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5·18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6일 아름다운 금남로 가로공원 조성(금남로 프로젝트)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결과 6점(우수 3점, 장려 3점)이 입상작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우수작은 강은국씨 등 2인의 ‘투쟁의 물결이 화합의 물결로’와 전진연씨 등 8명의 ‘금남로 문화가로공원 조성’을 위한 제안, 한동복씨 등 5명의 ‘길’ 등이다. 장려작은 김자영씨의 ‘반짝이는 거리’(Twinkle street) 등 3점이다. 우수작에는 150만원, 장려작에는 100만원씩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최우수작은 나오지 않았다.

■ 향후 과제는

도심빌딩 공실률 해소 대체도로 확보 관건

금남로프로젝트가 도심보도를 공원화하겠다는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교통전문가들은 금남로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로 축소(왕복 6차선→2차선)에 따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부동산전문가들은 계획대로 도로가 축소될 경우 도심 대형빌딩의 가능성이 떨어져 사무실 공실률이 높아진다고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5·18민중항쟁의 중심지인 옛 전남도청앞에서 한국은행 사거리까지의 거리가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을 까 하는 의구심도 있다.

최완석 광주대 부동산 및 도시계획학과 교

금남로 프로젝트 권역별구상도



2016년 공원으로 조성될 금남로.

수는 “금남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로 축소에 따른 대체도로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빌딩기능 축소 대책과 5·18항쟁지로서의 상징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도로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전남여고와 중앙초등학교의 도로 확장 또는 기능 확대 ▲전대병원로터리에서 서석로간 도로 기능 확보 ▲천변도로와 금남로를 가로로 잇는 도로 개설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도로 및 대형 빌딩 기능 축소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해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용역과 별개로 금남로 1.6km구간 주변에 3~4개의 대형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과 도로축소에 따른 대체도로 확보에 들어갔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지하상가를 지하차도로 전환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세계최초 공기과학 병+난방기

공기를 에너지로 유지비를 1/3로 유해가스를 0%로

사용요금을 일반전력보다 더 저렴!

3년 무상보증

2007년 별저는 시민과학을 만나다

전국은 바다와 심에 꼭박혔다!

바다와 심에 꼭박혔다!

바다와 심에 꼭박혔다!

바다와 심에 꼭박혔다!